

미 증시, 높은 물가 불구 견고한 실적에 주목하며 상승 지속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미 증시는 높은 물가 지표 여파로 장 초반 혼조 양상을 보이었으나, 애플(+3.28%)과 아마존(+10.36%)이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하고, 셰브론(+8.90%) 등 에너지 업종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이자 본격적인 상승폭을 확대. 물론 애브비(-4.17%), P&G(-6.18%) 등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해 필수 소비재와 제약 업종 등은 약세를 보이는 등 실적에 주목하며 차별화를 보인 점도 특징(다우 +0.97%, 나스닥 +1.88%, S&P500 +1.42%, 러셀2000 +0.65%)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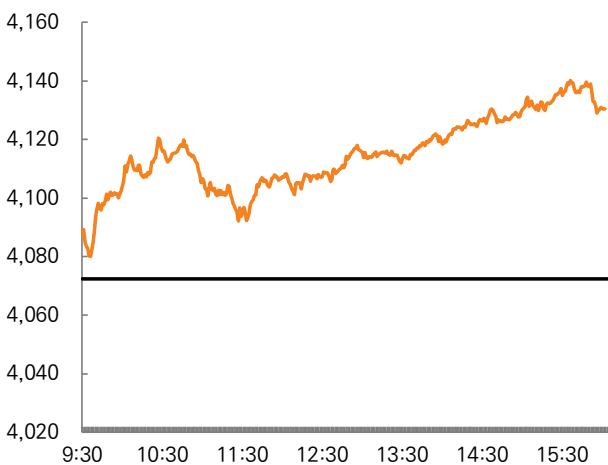
•애플(+3.28%)과 아마존(+10.36%)은 견고한 실적 발표로 강세. 알파벳(+1.79%), MS(+1.57%)등도 동반 상승. 테슬라(+5.79%)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소식에 강세. 반면, 가정용품 업체인 처치 앤드와이트(-8.56%)는 인플레이션으로 부진한 실적 발표하자 급락. P&G(-6.18%)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알리바바(-11.12%)는 미 증권 거래 위원회가 상장폐지 잠정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에 급락. 진동닷컴(-4.23%) 등 중국 기업들 대부분 동반 하락. 인텔(8.56%)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한 반면 경쟁 업체인 AMD(+3.05%)는 상승

한국 증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4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4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9% 상승. KOSPI는 소폭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금요일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NDF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부담. 한편,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경기 부양책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요일 중국의 제조업 PMI, 월요일 한국 수출입 통계,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한국, 중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전망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451.50	+0.67	상해종합	3,253.24	-0.89
KOSDAQ	803.62	+0.66	홍콩항생	20,156.51	-2.26
DOW	32,845.13	+0.97	베트남	1,206.33	-0.15
NASDAQ	12,390.69	+1.88	유로스톡스 50	3,708.10	+1.53
S&P 500	4,130.29	+1.42	영국	7,423.43	+1.06
캐나다	19,692.92	+1.21	독일	13,484.05	+1.52
일본	27,801.64	-0.05	프랑스	6,448.50	+1.7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애플과 아마존 실적 의미 ②높은 물가

시장이 주목했던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두 종목 모두 달러 강세와 공급망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애플의 경우 아이폰으로 전환한 사용자수가 증가했고, 서비스 부문 또한 광고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수 급증으로 양호한 결과를 내놓음. 여기에 애플은 아이폰으로의 전환 고객수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환차손과 러시아 시장 여파로 이번 분기보다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자 상승.

아마존 또한 프라임 고객들의 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팬데믹 이후 경기 정상화 될 경우 일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증가한 점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이 큰 폭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EPS의 적자 전환은 리비안 평가손실에 의한 것일 뿐 이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견고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한편, 최근 실적을 발표한 대형 기술주들의 특징을 보면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하며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인 점이 특징. 이는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개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인 점도 특징. 이를 감안 달러화의 영향도 중요하나 향후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미국 6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6% 증가해 지난달 발표와 같았으나 예상치인 0.5% 증가보다는 개선.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 지난달 발표인 0.3%는 물론 예상치인 0.9%를 상회

시장이 주목했던 미국 6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0.6%는 물론 예상치인 0.9%를 상회 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6.8%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6.3%를 상회. 근원 PCE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0.3%는 물론 예상치인 0.5%를 상회 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4.8% 상승해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인 4.7%를 상회

세부적으로 보면 내구재가 6.6%에서 6.1% 하락 했으나, 비 내구재가 11.3%에서 13.0%로, 에너지가 35.6%에서 43.5%로 상승한 점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임. 그렇지만,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택 임대료 등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의 영향은 제한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기술주 강세 Vs. 생활용품, 중국 기업 급락

애플(+3.28%)은 양호한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 아마존(+10.36%)은 견고한 실적 특히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 알파벳(+1.79%), MS(+1.57%)도 동반 상승 했으며 세일즈포스(+1.51%), 스노우플레이크(+4.63%) 등도 강세. 테슬라(+5.79%)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소식에 강세. 포드(+4.93%), GM(+1.46%) 등도 상승. 퍼스트솔라(+12.06%)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특히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한 기대로 투자심리가 양호한 가운데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폭이 확대. 솔라엠티(+5.55%), 엔페이즈(+3.65%) 등도 동반 상승.

가정용품 업체인 처치 앤 드와이트(-8.56%)는 인플레이션으로 부진한 실적 발표하자 급락. P&G(-6.18%)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알리바바(-11.12%)는 미 증권 거래 위원회가 상장폐지 잠정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에 급락. 진동닷컴(-4.23%), 핀듀듀(-3.73%), 바이두(-2.87%) 등 여타 중국 기업들 대부분 동반 하락. TAL 에듀케이션(-7.69%)은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에 따른 실적 급감 여파로 하락. 가투 테크에듀(-8.56%), 뉴 오리엔타교육(-5.48%) 등도 동반 하락. 애브비(-4.17%)는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오피오이드 제품 관련 소송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총당금을 설정하자 급락. 인텔(8.56%)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한 반면 경쟁 업체인 AMD(+3.05%)는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33	대형 가치주 ETF (IVE)	+0.80
에너지섹터 ETF (OIH)	+4.79	중형 가치주 ETF (IWS)	+1.04
소매업체 ETF (XLY)	+3.88	소형 가치주 ETF (IWN)	+0.62
온라인소매 ETF (EBIZ)	-0.23	대형 성장주 ETF (VUG)	+2.00
금융섹터 ETF (XLF)	+1.41	중형 성장주 ETF (IWP)	+0.99
기술섹터 ETF (XLK)	+1.53	소형 성장주 ETF (IWO)	+0.7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36	배당주 ETF (DVY)	+1.01
클라우드 ETF (CLOU)	+0.35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38
미국 리츠 ETF (VNQ)	+0.54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11
주택건설업체 ETF (XHB)	+1.09	미국 국채 ETF (IEF)	+0.04
바이오섹터 ETF (IBB)	-0.03	하이일드 ETF (JNK)	+0.26
헬스케어 ETF (XLV)	-0.33	물가연동채 ETF (TIP)	+0.50
곡물 ETF (DBA)	+0.3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4
반도체 ETF (SMH)	+0.83	모멘텀 ETF (MTUM)	+1.1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598.74	+4.51	+10.31	+7.38
경기소비재	1,281.51	+4.27	+5.55	+17.07
산업재	808.28	+2.00	+5.70	+9.77
IT	2,522.61	+1.55	+5.08	+11.97
금융	560.04	+1.40	+2.91	+6.07
소재	491.31	+1.32	+4.08	+4.78
유틸리티	375.65	+0.83	+6.46	+6.54
통신	192.55	+0.56	+2.48	+1.89
부동산	277.49	+0.30	+4.86	+8.53
헬스케어	1,541.88	-0.35	+1.95	+2.84
필수소비재	773.50	-0.72	+1.62	+3.0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한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4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4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9% 상승. KOSPI는 소폭 상승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바이든 미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도 긍정적. 이는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 다만, 중국 증시가 정치국회의에서 기대했던 부양책 등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미-중 정상 회담에서 관세 인하 등 경제적인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실망 속 하락하자 한국 증시는 장 후반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축소. 결국 KOSPI는 0.67%, KOSDAQ은 0.66%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 등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 그렇지만, 미 증시 상승 요인은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NDF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부담.

한편, 일요일(31일)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지난달 발표보다 개선된 5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여기에 월요일(1일) 발표되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지수와 특히 한국 7월 수출 증가율에 주목. 수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발표(yoy +5.2%)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경기 부양책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지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중국과 한국 경제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될 수 있음

주요 경제지표 결과

높은 물가와 소비 지출 급증

미국 6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6% 증가해 지난달 발표와 같았으나 예상치인 0.5% 증가보다는 개선.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 지난달 발표인 0.3%는 물론 예상치인 0.9%를 상회

미국 6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0.6%는 물론 예상치인 0.9%를 상회 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6.8%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6.3%를 상회. 근원 PCE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달 발표된 0.3%는 물론 예상치인 0.5%를 상회 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4.8% 상승해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인 4.7%를 상회

미국 7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치인 50.0은 물론 잠정치인 51.1보다 상향된 51.5로 발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5.3%보다 하향 된 5.2%로 잠정치와 동일. 다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3.1%보다 하향 된 2.9%로 발표되었으나 잠정치인 2.8%에서 상향

7월 시카고 PMI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인 56.0을 하회한 52.1로 발표되며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임금과 고용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둔화



에너지, 비철금속 가격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 유입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OPEC+ 회담을 앞두고 공급 규모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더불어 비철 금속의 상승이 이어지자 원자재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

달러화는 PCE 물가지수 발표 후 장 시작 전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유로화와 특히 엔화의 강세폭이 확대되자 결국 약세로 전환. 유로화는 보험권 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물가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은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음. 엔화는 전일에 이어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 발표 후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되는 경향. 여기에 핵심 CPI가 2014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점이 엔화 강세 요인 중 하나. 반면, 역외 위안화를 비롯한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 이는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국채금리는 높은 물가 지수 여파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과거 수치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 단기물의 경우 전일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며 상승 했으나, 장기물의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진행됨에 따라 하락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인 점도 특징.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등에 기대 상승. 곡물은 대두가 주요 작황지에서 고온 건조 우려가 지속되며 상승. 옥수수수는 프랑스 평원 지역에 가뭄이 이어지자 상승. 밀은 우크라이나 재고 수출 기대 속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84%, 철근은 2.22%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98.62	+2.28	+4.14	Dollar Index	105.828	-0.49	-0.85
브렌트유	103.97	+2.11	+5.69	EUR/USD	1.0220	+0.23	+0.07
천연가스	8.23	+1.17	-0.84	USD/JPY	133.27	-0.74	-2.09
금	1,781.80	+0.71	+2.09	GBP/USD	1.2171	-0.07	+1.43
은	20.20	+1.66	+8.49	USD/CHF	0.9524	-0.26	-1.09
알루미늄	2,488.50	+1.32	+0.53	AUD/USD	0.6985	-0.06	+0.81
전기동	7,917.50	+2.00	+6.24	USD/CAD	1.2795	-0.09	-0.94
아연	3,308.50	+4.70	+10.56	USD/RUB	62.2385	+0.95	+6.96
옥수수	620.00	+0.16	+9.88	USD/BRL	5.1733	-0.18	-5.91
밀	807.75	-1.13	+6.42	USD/CNH	6.7498	+0.08	-0.25
대두	1,468.50	+1.94	+11.61	USD/KRW	1,299.10	+0.23	-1.06
커피	217.20	-0.55	+5.08	USD/KRW NDF1M	1,303.42	+0.61	-0.4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649	-2.72	-10.17	스페인	1.916	-7.40	-33.90
한국	3.125	-7.50	-17.60	포르투갈	1.843	-7.30	-35.00
일본	0.185	-2.00	-3.00	그리스	2.959	+2.80	-29.60
독일	0.817	-0.90	-21.40	이탈리아	2.876	-15.10	-29.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